

장로교 정치제도의 토대

제 1 장

교회의 선교¹

F-1.01 하나님의 선교

복음서의 복음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신다는 메시지이다. 성서에 기록된 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억눌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언약하셨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취하시어, 세상 안에서 사시고 세상을 위해 죽으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알린다. 피폐한 삶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눈 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며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이며,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님의 은사를 선포하는 복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교회의 삶과 사역의 형태와 본질을 부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람의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을 세례반과 성찬대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도록 초대하며,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의 제자직에 부름으로써 모든 피조물과 인류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 사명에 참여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제와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고 즐겁게 체험하며, 하나님과 계약친교 안에서 삶을 살고,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높은 목적이 없다.

F-1.02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심

1.0201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두셨으며, 그리스도를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교회의 삶과 선교는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즐겁게 참여하는 것이다.

¹ 이 문서와 정치/형태를 통해 쓰여진 대문자 “교회”(“Church”)는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 받은 보편교회를 의미한다. 소문자 교회(“church”)는 교파적 교회들을 의미한다. 단 제목의 일부로 쓰여졌을 때(예: 미장로교회)는 예외. 비전문적으로 개교회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교회”라는 단어 대신에 “개교회” 단어가 사용되어 있다.

1.0202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불러 세우사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와 교회의 성화와 하나님께 대한 교회의 봉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교회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홀로 그의 뜻 대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며 사용하신다.

1.0203 그리스도가 교회에 생명을 주심

그리스도는 교회에 신앙과 생명, 일치와 선교, 직제와 규율을 주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대로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 예배와 하나님 섬김, 그리고 교회의 치리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성과 건전한 판단에 의해 말씀에 일치되게 다스려져야 한다.

1.0204 그리스도는 교회의 희망이심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희망이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그의 권위에 예속되었고, 생동적이고 환희에 찬 하나님의 은혜의 실재 가운데 자유하는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1.0205 그리스도는 교회의 바탕이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기쁘게 머무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화해하시며,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신다(골 1:19-20).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과 화해하는 복음을 증거하도록 파견받았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진리와 청원, 그의 거룩함과 연합을 받아들인다.

F-1.03 교회의 부름 받음

1.0301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이 되도록 필요한 모든 은사를 교회에 주셨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공동체로서 삶에서 이러한 은사를 증명하기 위해 힘쓴다(고전 12:27-28):

교회는 자체 생존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한분께만 의탁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확실하고 분명한 지식 안에서 즐거워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새로운 창조는 인간의 삶과 모든 것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교회는 현재 그 약속된 새로운 창조의 힘을 실행한다.

교회는, 죄가 용서되고 화해가 이룩되고 적대하는 분열의 벽이 허물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말씀과 사역을 통하는 것 이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사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1.0302 교회의 표식²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고 확신한다.

a. 교회의 일치

사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 분 구세주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이다. 교회가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추구하며, 기독교 공동체만이 혜택을 즐기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교회는 하나이다. 왜냐면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이며,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엡 4:5-6).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되기 위해 힘쓴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과의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모든 이들과 결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결합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 사제가 되어주는 것이고, 세상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의 복지를 위해 각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여러 다른 교단으로 분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모호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파괴시키는 것은 아니다. 미국장로교(PCUSA)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교회와 역사적 연속성을 확인하는 가운데, 상기 언급의 그 모호성을 줄일 것을 다짐한다. 또 나아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안에서 다른 모든 교단들과의 교류를 기꺼이 추구하며 심화시킬 것이다.

b. 교회의 거룩함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성령의 힘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주신다. 교회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교회를 선별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교리의 순수성이나 교회 행동의 공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² 신앙고백서니케아 신조 1.3 참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와 교인들과 직제사역자들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쓴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생활하는 각 신앙인과 각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사의 수단에 의존한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생활과 개인생활에 실재하는 죄가 집요성을 고백한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용서받았음을 고백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순결성과 공의로움과 진리를 위해 정진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또 받고 있음을 고백한다.

c. 교회의 보편성

사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불화가 극복되게 하시고, 분열이 치료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시공간·인종·국적·연령·조건·신분의 남녀들과 어린이들을 감싸 안으시는 그리스도의 포용성을 각처에서 증거하기 위해 힘쓴다.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사를 증거하면서, 보다 깊은 믿음과 보다 큰 소망과 보다 완전한 사랑을 향해 가도록 교회를 부른다.

d. 교회의 사도성

사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구속의 복음을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사도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충실하게 전파하기 위해 힘쓴다.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증언을 통해, 교회의 긴 역사를 통해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 받는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증거를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으로 보내졌고 지금도 보내지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묶인 자들을 자유케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부서진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지금도 세상 안에서 역사하심을 말과 행위로서 증거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순응하도록 파견되는 것이며, 또한 현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도록 파견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장로교(PCUSA)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하며, 수세기동안 하나님 선교와 밀접한 연속관계에 있어왔다.

교회는 교회가 받은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 힘쓰며, 또한 신앙고백의 표준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 힘쓴다. 교회는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고, 그리스도 홀로 구세주요 주님이시며 그의 제자로서의 새 삶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알리기 추구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전도자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부름을 받았다:

-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나라에 제자들을 만드는 일;
- 예배와 기도, 친교와 봉사의 심도있는 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
-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들의 필요를 돌보도록 하시는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고; 사람들을 좌와 고통과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일; 세상에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통치를 이룩하는 일.

1.0303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각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 개혁교회 기독교인들은 동 교단 초기부터 다음의 교회들을 (어디에 소재하든 간에) 참된 교회의 존재로 표시했다

-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리게 하는 교회
-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교회
- 교회 규율을 준엄히 집행하는 교회.

현시대에서 우리는,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 선교에 충실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약속에 응답하고
그러한 새 창조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성례전을 집행하고 받는다

그리스도 안으로 접목이 되는 이들을 환영하고
그리스도의 인류를 구원하는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앞으로 다가올 천상의 만찬을 고대하면서
소외되고 굶주린 자들과 현재에서 결속을 다짐한다;

그리스도 제자들의 계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힘 안에서 살며
하나님 선교에 헌신한다.

³스콧 신앙고백서 제 18 장 참조(*신앙고백서* 3.18)

1.0304 교회의 큰 목적

교회의 큰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선포;
- 하나님 자녀들의 안식처, 양육과 영적 친교;
- 거룩한 예배의 유지;
- 진리의 보존;
- 사회정의의 촉진; 그리고
-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제시하는 것이다.⁴

F-1.04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린 자세

1.0401 연속성과 개혁

미국장로교(PCUSA) 헌법에 명시된 장로교 정치형태는 성경에 근거하며, 참된 교회의 표징들을 중심으로 확립되어 있다. 이는 교회의 주님이신 분에게 종속되는 모든 것들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힘으로 예배 공동체와 개인 신자들을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활동 안으로 끌어당기신다. 교회는 개혁과 참신한 방향을 추구하면서, 우리 앞에 서서 자신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한다. 성령의 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 받기를”(롬 12:2) 구한다.

1.0402 에큐메니시티

미국장로교(PCUSA) 헌법의 장로교 정치제도는 성경에 비추어 세워진 것이지만, 이것이 기독교 교회의 존속을 위해 본질적이라거나, 전 기독교인들에게 의무화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0403 다양성과 포용성

“여러분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신 분들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갈 3:27-29).

⁴ 교회의 큰 목적에 관한 이 선언은 북미 연합장로교회에서 나온 것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동 교단은 1958년에 미국장로교회와 통합하였고 이 선언은 통합된 교단의 명칭이 된 미연합장로교 교단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지금은 고전이 된 이 선언은 1904년과 1910년 사이에 다양한 결정을 따라가며, 그리고 동 교단 헌법 개정을 앞두고, 1910년에 북미 연합장로교회에 의해 채택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의 일치는 교회 회원들의 풍부한 다양성에 반영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종·민족·나이·성별·지체부자유·지리적 위치·신학적 입장에 대한 구별 없이 그들을 세례를 통해 결합하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삶 속에서 어떤 이를 상대로 차별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미국장로교(PCUSA)는 장로교 회원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모든 그룹들에게 예배와 치리 또는 삶이 일어나는 곳에서 전면 참여와 전면 대표를 반드시 보장하게 되어 있다. 어느 누구도 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사유에 의해 참여와 대표의 권리를 부인당할 수 없다.

1.0404 열린 자세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세상 안 선교에 대해 새로운 개방성을 추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를 돌보시고, 죄많은 인간의 저주를 괴로워하시며 새로운 인간을 일으키시고 모든 피조물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당기시는 미래 뿐만이 아니고, 피조성, 죄성, 깨어진 관계, 고통의 실존을 전 인류와 함께 나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에게는 물론이고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에게도 해당된다. 미국장로교(PCUSA)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가운데 다음을 추구한다.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활동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순종에 대해, 그리고 예배와 사역에 대한 보다 즐거운 참여에 대해 새로운 열린 자세;

새 인간의 가시적인 표징으로서,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든 연령과 인종과 민족과 조건의 남녀 회원의 신앙공동체가 되는 회원자격에 대해 새로운 열린 자세;

이러한 제도적 형태가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활동에 대해 충실성과 유익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형태의 가능성과 위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열린 자세;

보다 효과적인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큐메니칼 교회를 끊임없이 개혁 하심에 대한 새로운 열린 자세.

제2장

교회와 신앙고백

F-2.01 신앙고백적 진술의 목적

미국장로교는 *신앙고백서* 가운데 있는 신조와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한다. 이러한 고백에서 교회는 교인과 세상을 향해, 교회의 정체와 역할에 대해, 교회의 믿음에 대해 선포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지침서이고, 그것들은 개혁주의 기독교 전통의 본질을 요약한 것이며,

그것들은 교회로 하여금 건전한 교리를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또 그것들은 복음 선포의 사역을 위해 교회를 훈련시킨다. 그것들은 개인의 신앙결단 및 신앙공동체의 생활과 복음 증거를 강화하는 데 요긴한 것이다.

이 교단의 신조와 신앙고백은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 안에 있었던 특정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서 일어난 것이다. 그 고백들은, 복음 사가들에 의해 위기에 처해질 진리로 인지되었던 바로 그러한 핵심에서 복음의 진리를 주장한 것이다. 그것들은 살아 있는 전통 안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체험한 결과로서 나타난 고백들이다. 그 고백들은 그 당시의 사회문화의 추정 안에서 진리를 반영하는 한편, 복음의 보편적 진리에 호소하고 있다. 그것들은 때때로 서로를 긴장관계에 두기도 하였으나 공통의 신앙 전통을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다.

F-2.02 부차적인 표준으로서 신앙고백

이 신앙고백적 진술은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하나님 말씀에 예속하는 교회의 부차적인 표준이다. 고백적 표준이 성경에 부차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표준이다. 그것들은 소홀히 작성되었거나 찬동된 것이 아니므로 무시되거나 경솔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신앙을 심각히 거절하는 안수받은 자에게 교회는 가르침과 조언을 주며 권징하기도 한다. 더욱이 교회 신앙고백서 변경 절차는 교단 전체적으로 고도의 일치된 의견이 필요하고 의도적으로 준엄한 개정 절차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가운데, 치리와 교리의 표준 개혁에 개방적이다. 교회는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secundum verbum Dei*를 확인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힘에 의하여 “개혁된 교회이며 항상 개혁하는 교회”라는 뜻이다.

F-2.03 보편된 교회의 신앙 진술로서 고백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에서 보편된 교회의 신앙을 증언한다. 그 신앙고백은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 즉 정전(正典)으로서의 성경과 전세계 교회적인 신조,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육신의 신비를 정의한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의 형성과 채택을 인정하는 그 교회의 신앙을 표현한다.

F-2.04 개혁주의 개신교 신앙의 진술로서 고백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들에서 개신교 종교개혁 선언들을 지지한다. 이들 주장의 초점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개신교의 ‘은총만으로’ 믿음만으로, 성경만으로’ 슬로건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자극시키는 이해의 제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F-2.05 개혁주의 전통의 신앙 진술로서 고백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들에서 개혁주의 전통의 신앙을 표현한다. 이 전통의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절대주권의 공의로움과 사랑의 자유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속시키시며 다스리시고 구속하시는 신의 주권, 거룩하심, 섭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이 핵심적 선언과 관련하여 개혁주의 전통의 다른 큰 테마들이 있다:

구원과 섬김을 위한 하나님 백성 선택;

교회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도록, 기강있는 배려에 의한 계약의 삶을 사는 일;

겉치레를 피하고, 하나님 창조의 은총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는 충실한 청지기 정신;

인간에게 우상숭배와 독재의 경향이 늘 있음을 인정하는 일, 즉 하나님 계명에 순명하는 삶을 살고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사회 변혁을 위해 일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음을 인정하는 일.

제 3 장 규례와 정치의 원리

F-3.01 교회규례의 역사적 원리⁵

본 *규례서*를 제시하면서, 미국장로교(PCUSA)는 이 나라 공통 유산의 일부가 되어왔으며 장로교 개념과 교회치리제도의 기본이 되어 온 교회규례의 역사적 제 원리를 재확인한다. 즉:

3.0101 *하나님은 양심의 주인이심*

a.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교리와 계율⁶이 신앙이나 예배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거나 벗어난 것이면 양심은 그 인간 교리와 계율로부터 자유하다.”⁷

b.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종교문제에 있어서 사적인 판단의 권리들을 보편적인 권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간주한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 헌법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하고, 동시에 누구에게나 동등하며 공통된다는 사실 이외에 국가 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5 이 조항은, 첫 구절만 제외하고 뉴욕과 필라델피아 대회가 처음으로 1788년에 만들어 낸 정치형태 서문에서 따온 것이다. 그 해에 그 대회는 네 대회로 분리하여 미국장로교 총회를 구성했고, 그 다음 해에 첫 총회로 모였다. 그 네(4) 대회는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캐롤라이나 대회로 구성되었다. 이 네(4) 대회가 총회에 총대를 보내서 1789년 5월 21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첫 총회로 모였다. 1788년에 만들어진 총괄적 계획이 미국남장로회와 미국연합장로교회의 계속적인 정치원리가 되어 왔다.

6 여기 인용한 인간과 인간의(“men”과 “man’s”)는 18세기에서 나온 말로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신앙고백서* 6.109) 참조

3.0102 집단적 판단

상기의 보편적 권리의 원칙에 전적으로 입각하여, 각 기독교 교회나 연합체나 특정 교회들의 연합이나 조합의 각각은 그 교류 안으로 받아들이는 목사와 교인의 자격을 설정할 권리는 물론이고, 그리스도께서 임명한 교회 내부의 치리에 관한 전체 제도를 선언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교회조직의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그 자격 규정을 너무 해이하게, 혹은 너무 협소하게 만드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자유나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며, 다만 교회가 자신들의 권리를 잘 못 사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3.0103 제직원

우리의 복되신 구세주께서는 그의 몸인 가시적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제직원을 임명하시어,⁸ 그들로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진리와 의무를 보존하기 위하여 권징을 실시토록 하신다; 이것은 모든 제직원과 전체 교회에 주어진 의무로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권징을 준수하면서 잘못을 범하는 자들과 불명예스런 자들은 견책하거나 축출시킨다.

3.0104 진리와 선함

진리는 선함에 도달하기 위해 마땅히 있어야 한다.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고 하신 구주의 법에 따라 성결을 증진하는 것이 진리의 큰 시금석이며 그 의도다. 진리와 거짓을 같은 수준에 놓고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사람의 의견은 어떤 중요성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해롭거나 더 부조리한 것은 없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신앙과 실천, 진리와 의무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지 않다면 진리를 찾거나 그것을 받아들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3.0105 상호관용

이상의 원칙에 입각한 확신에서 교사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신앙이 건전해야 한다는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또한 좋은 품성과 원칙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진리와 형식에 대한 이해에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피차에 상호 관용하는 일이 개 교인과 교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3.0106 교인들에 의한 제직원 선출

교회 제직원의 품성, 자격, 권위만이 아니라 그 직분 부여와 제도의 적절한 방법까지 성경에 명시되었을지라도, 어느 특정 조직의 권한을 수행할 제직원을 선출하는 권리는 그 단체에 속한다.

⁸ 제직원과 제직의 용어는 제 원칙에 관한 역사적 언문의 일부로서 여기에 보존되어 있다. “직제사역자”와 “직제사역”의 용어들이 정치형태 전반에 나타나는데 이는 제직원과 제직 대신에 사용되어 있다

3.0107 교회의 권한

모든 교회 권한은 전체 교회가 총체적으로 하든지 혹은 권한위임에 의해 대표되는지 간에, 오직 목회적이며 선언적일 뿐이다. 즉,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고, 교회의 어떠한 치리회⁹도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양심을 억압하는 법을 제정하려 해서는 안 되며, 치리회의 모든 결정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내려져야 한다. 모든 대회와 중앙협의회가 인간에서 분리될 수 없는 약점 때문에 과오를 범할 수 있지만, 이미 제정되었고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법을 판단하는 권리보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억지 주장에 더 큰 위험성이 있다. 그렇지라도 이 권리는 현 상태에서 필요하기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에게 맡겨진 것이다.

3.0108 교회 권징의 가치

끝으로, 위에서 언급된 성서적이고도 합리적인 제 원칙이 확고하게 준수된다면 교회 권징의 구속력과 엄격성은 교회의 영광과 행복에 기여할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오로지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공권력 효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강제성도 있을 수 없다, 권징은 다만 그 자체의 공의로움, 공정한 대중의 승인, 그리고 세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지와 축복 속에서 발생한다.

F-3.02 장로교 정치의 원리

미국장로교는 보편교회 원칙의 맥락 안에서 장로회 정치의 기본 원칙에 대한 특별한 결단을 재확인한다:

3.0201 하나의 교회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모두 집합적으로 하나의 교회를 구성하며, 교회라 부른다.

3.0202 장로에 의한 치리

이 교회는 노회, 즉 치리장로들과 가르치는 장로들에 의해 치리된다. 치리장로라 부르는 것은 그들이 회중 위에 “군림하기”(마 20:25)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실성을 분간하고 판단하며 신앙생활을 강화하고 육성하도록 개교회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장로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사역과 증거하는 일에 준비시키는 모든 일에 헌신해야 한다.

3.0203 협의회 회집

이 장로들은 각급 협의회에서 회집한다. 이러한 협의회들을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라고 부른다. 교회의 모든 협의회들은 교회의 본질상 일체가 되어 이 헌법이 부여하는

⁹ 제 원칙에 관한 역사적 어문 일부로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치리회”는 그 용어가 “협의회”로 바뀌어 정치형태 전반에 나타나 있다.

책임과 권리와 권한을 서로 공유한다. 협의회들은 서로 별개적이거나 어느 한 협의회는 행동은 이를 통해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행위가 되며 이러한 점에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 교회의 상회나 상회의 대표는 교회의 하회를 치리한다.

3.0204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반영함

장로들은 단순히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한다기 보다는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대변하기를 구한다.

3.0205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토의와 분별의 기회를 가진 다음에 투표로 결정하며, 다수결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3.0206 검토와 감독:

상회 협의회는 하회 협의회를 검열하고 통제할 권리를 가지며, 조회나 불평이나 상소가 들어왔을 때 논란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3.0207 협의회에 의한 안수

장로(치리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와 집사는 오로지 협의회 권한으로만 안수된다.

3.0208 공유된 권한, 공동 행사

교회 관할권은 공유 권한이며, 협의회에 회집된 장로들에 의해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3.0209 일반 협의회 권한

협의회는 교회 헌법이 정한 의무와 권한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권한을 보유한다. 각 협의회의 관할권은 헌법의 명시적인 조항에 의해 제한되며, 노회에 예속된 것으로 언급되지 권한을 가진다.

F-3.03 기초 선언문

이 단원에 포함된 선언문들, “장로교 정치제도의 토대”는 미국장로교(PCUSA) 정치체제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교회적이고 역사적인 결단들을 기술한다. 이 헌법 어느 조항이든지 전체 헌법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규례서의 어느 조항도 그 자체로서 다른 어떤 조항을 무효화 시킬 수 없다. 조항들 간에 긴장과 모호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협의회와 사법전권위원회가 전 조항에 대해 효과가 미치는 방법으로 해소한다.

F-3.04 미국장로교 헌법의 정의

미국장로교 헌법은 신앙고백서와 규례서로 구성된다.

신앙고백서는 다음의 고백서들을 포함한다:

- 니케아 신조 (The Nicene Creed)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 스콧 신앙고백서 (The Scots Confession)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The Heidelberg Catechism)
- 제2스위스 신앙고백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 바르멘 신학선언 (The Theological Declaration of Barmen)
- 1967년도 신앙고백 (The Confession of 1967)
- 간추린 신앙고백 (A Brief Statement of Faith) – 미국장로교.

규례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장로교 정치제도의 토대 (The Foundations of Presbyterian Polity)
- 정치형태 (The Form of Government)
- 예배모범(The Directory for Worship)
- 권징조례 (The Directory for Worship)